

“몸을 뒤쳐 집으로 돌아갔다”

“스님, 불 들어감니다.”

영축산을 호령하던 큰 별이 세속의 마지막 연을 벗는 순간이었다.

조계종 제9대 종정이자 통도사 방장인 노련당 월하 대

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12월 10일 통도사 경내와 다비장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과 부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 원명 지중 성수 녹원 보성 환안 지관 진제 지혜 정천 천운 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전국구비회회장 명성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자철 스님 등 5만여 사부대중이 참석,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정·관계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이태일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주안자 자민련 부총재, 추미애 민주당 의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오지철 문광 부 차관, 조윤제 청와대 불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 스님의 월하 스님 행장 소개, 육성법륜 청취,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영결사, 종정 법전 스님의 법어,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의 추도사,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과 수좌대표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의 조사로 이어졌다.

종정 법전 스님은 추도사에서 “오늘 아침 영축한 한 늙은이가 여기에서 몸을 뒤쳐 허공을 향해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며 “비로 자나 부처님이 꽃 한송이를 드니 부처와 불초는 물 밑에서 잠을 다도다”라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영결사에서 “불초의 연꽃은 불에서 피어나도 시들지 않는다 했다. 그 여전한 모습을 이 자리에서 시현하소서”라며 월하 스님의 뜻을 기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조사에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높은 법의 향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린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만장을 앞세운 운구행렬은 일주문 앞에서 잠시 노제를 지내고 부도원을 지나 통도사에서 4.2km 떨어진 다비장으로 곧장 향했다. 1시간여 만에 다비장에 도착한 운구행렬이 연화

월하 스님 다비식 10일 봉행

운구행렬 연화대 한바퀴 돈후 거화

사리 50여과 수습... 정변전 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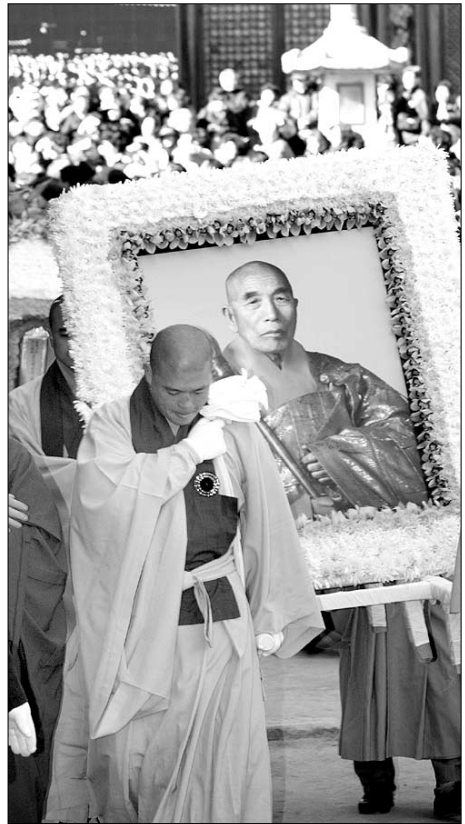
10여 명의 원로의원 스님, 통도사 부방장 초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거화하면서 연화대에 불길이 치솟았다.

다비식 다음날인 11일 통도사는 습골작업을 진행했으며, 50여과의 사리를 수습해 월하스님이 주석했던 정변전에 모셨으며, 사리 공개 여부는 문도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월하스님의 49세 행사는 7세 때인 내년 1월 21일이 그믐인 관계로 6세 때인 1월 14일로 앞당겨 치르기로 했다.

대를 한 바퀴 돈 후 본격적인 다비식이 거행됐고, 오후 1시 25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을 비롯한

한명우·천미희 기자



다비장으로 향하고 있는 운구행렬. 사진=박재완 기자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 ‘문중장’이다. 문중의 최고 어른에 해당하는 스님이 입적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보통 3일 내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문도장은 문중장보다 하위 개념이지만 주로 문도를 대표하는 스님이 입적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상좌들이 주관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 3일장으로 치러진다.

을 4월 입적한 서암스님은 종정을 지냈기 때문에 종단장을 거행해야 했으나 전국수좌회의 요청에 따라 수좌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렀다. 이처럼 불교 장례는 종단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명우 기자

재정 확충·동문간 간격 좁혀야

‘대불련과 총동문회 활성화의 관건은 재정확보와 재학생 교육체계 확립에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성기태·중주대 총장)가 12월 6-7일 이틀간 대전 유성구 경하호텔에서 ‘대불련 조직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2003 대불련 동문 지도자 워크숍’에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정확충과 교육체계 정립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워크숍 제2분과에서는 △수익사업 창출 △지부별 의무적 회비 납부제 도입 △재학생 불교기초 교육체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명철 숭실대 불교학부 동문회장은 “재정확보에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조직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며 ‘조직 완비와 함께 의무적으로 회비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동문회 이사회 김동길 부의장은 “대불련 조직체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유아에서 성인까지 볼 수 있는 불서출판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학생 불교학생회 지원책 마련 방안도 밀도 있게 논의됐다. 이를 위해 △재학생 불교 기초교육 시스템 구축 △총동문회 차원의 재학생 지부장 합동수여 △대불련 인터넷 도입 등의 취입센터 설치 △지부장의 해외 수련단 파견 △지부·지회별 동문 및 재학생 합동

법회 정례회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총동문회 제중호 이사는 “현재 불교학생회가 대학 사회에서 명맥조차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회원들이 이탈하는 등 심각한 정체를 맞고 있다”며 “대불련이 앞으로 온전히 견재하려면 재학생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능별 소모임을 결성해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구자훈 전남대 동문은 “세대별 동문간 이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60-70년대 순수불교 활동, 80년대 운동권, 90년 개인별 활동 등 세대별로 달리하는 동문 성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지회별 합동법회를 병행해야 한다”며 “향후 대불련 사업 추진의 핵심동력을 80-90년대 동문과

재학생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문들의 정기적인 신생활동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봉사활동 및 사찰 순례 정례회를 비롯해 △지역·권역별 신생활 사찰 지정 및 정기 수련회 개최 △대학별 지회 동문회 조직 △지부·지회별 홈페이지 제작 △특성화된 표준 신생활커리큘럼 개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정태 대전대 동문은 “우선, 총동문회의 활동 사항을 일리는 소식지를 최소한 6개월간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불련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대불련 활성화는 어떻게...’ 주제 워크숍

회비제·출판 등 수익사업 고려해 분직

지능별 소모임·재학생 기본교육 필요

본지는 올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40돌을 맞아 대불련,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특별기획 ‘그리운 대불련 동문 찾기 및 대학생포교 후원 캠페인’을 벌였다. 본지는 이번 특별기획 연재에서 그간 대불련 활동을 통해 사회에 진출, 각 분야 중견으로 성장한 동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한편, 교계 최대 인재은행을 만들어내는 등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 ‘대불련 어제와 오늘’을 연재하기 위해 대불련 지회와 동문 모임 10

불자 동문 결속에 한문

본지, 다양한 기획시리즈

곳을 탐방해 역사, 출신동문의 활약상, 재학생들의 활발한 신생활동 등을 지면에 담았다.

특히 후원캠페인을 전개, 1천여 만 원을 모금해 침체된 대학불교학생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육성에 소중한 밑거름을 제공했다.

본지는 앞으로도 대학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대불련과 총동문회가 한국 불교의 주춧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이다.

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진행하는 ‘소망등 만들기’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우리가족미술여행’이 바로 그것.

이밖에 서울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운영하는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사이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김은경 기자 ipok@buddhapia.com

겨울방학! 양어깨를 활짝 펴고...

청소년수련관들 다채로운 행사로 학생맞이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낼까? 이것저것 계획은 많지만 막상 출발하는 눈발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리는 게 사실. 자! 이제 두툼한 옷을 벗어버리고 주위를 살펴보자. 청소년수련관들 비롯한 청소년관련단체들이 겨울방학을 위해 교양강좌와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놓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발 빠른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 TV속 직업 따라잡기, 숨은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술교실과 댄스 경연대회,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진로상담과 적성검사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많다.

특히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전통육성기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참가비가 저렴한 편.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 올 겨울방학 보람차게 보내자.

PD, VJ, 웹자키, 영화감독, 카메라

기자... 더 이상 선망의 직업이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정보화센터가 청소년들의 꿈과 끼,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열어줄 ‘영

상 미디어 동아리활동’과 ‘미디어아카데미 겨울방학과정’을 운영한다.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영화 속 마술들의 원리와 기초적인 마술 기법을 배울 수 있는 ‘해리포터 마술교실’과 ‘행글라이더·에어로켓 만들기’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을 개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학 학과선택을 앞둔 고3학생들은 목동청소년수련관의 ‘직업찾기’ 교육을 주목하자.

주관	프로그램	일시	문의(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고3학생을 위한 적성검사·진로탐색(사전예약) 적성검사:12월 20일까지 진로탐색:12월 29일까지		2646-8341
구로청소년수련관	해리포터 마술교실	2004년 1월 2일-2월 4일	838-1318
	행글라이더·에어로켓 만들기	1월 6일-27일	
	애니메이션 교실	1월 8일-2월 5일	
수서청소년수련관	나를 들여다보기(진로·적성상담)	12월 26일-27일	2226-8555
	B-BOY 댄스 페스티벌	12월 20일, 27일	
중앙청소년수련관	TV속 직업 따라잡기	12월 15일-16일	490-0222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사이버 축제	12월 28일	834-7233
노원청소년수련관	동아리축제	12월 27일	3391-4141
청소년정보화센터	영상 미디어 동아리 활동	(2004년) 1월 15일부터	795-8000
	미디어아카데미 겨울방학과정	1월 6일, 7일, 8일 개강	
서울역사박물관	소망등 만들기	12월 20일-2004년 2월 15일	724-0149
국립현대미술관	우리가족 미술여행	2004년 1월 6일-3월 3일	2188-6065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 인터넷 바로하기	2004년 1월-2월	795-8000
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 교육문화교실	현재-2004년 1월 말	755-8000
성암월드컵공원	환경교실	2004년 1월 2일-2월 20일	300-5540
서울산업진흥재단	키즈존-애니티스쿨	2004년 1월 5일-10일, 12일-17일	3455-8484
서울대공원	겨울철새탐교실	12월 21일-2004년 1월 18일	500-7780-4

本願宗 第1·2·3世 宗正 太虛堂 啓漢大宗師 宗團葬

訃告

대한불교본원종 종정 태허당 계한大宗사께서 세연이 다하시어 서기 2548년 1월 23일 11시 30분 경 육예천연방사에서 원적 하셨습니다. 일락드립니다.

영결일시: 불기 2547년 12월 8일 10시

영결식장: 경복예천연방사

다비장: 접촌장계장

증명: 일락

고문: 정승법정, 범용, 용담, 보명, 국당, 대종, 송파

지도위원: 남일, 대봉, 대성

장유위원: 대화

장유위원: 대연, 혜원

장의위원: 혜운, 지우, 대성, 대일, 대용, 현담, 대능, 자관, 법진

진료: 자광, 용담, 종인, 혜공, 동오, 대광, 성덕, 화

지해장: 본덕, 화

진행위원: 대운

진행위원: 만혁, 대련, 명진, 법성, 자관

집행위원: 자인, 금오, 해광, 법훈, 청산, 자은, 오향, 지선, 원행

해안, 해관, 원각, 혜은, 정오, 청호, 혜심, 해련, 경산

병자, 자산

병마, 마혁

병전, 종인

병대, 대성

병무, 대항

병좌, 일룡

병좌, 용담

참회상좌: 무공

재가상좌: 백우, 무가에, 재도, 경순, 재하, 정선, 재호, 재우, 재취

중근, 재숙, 창식, 재봉, 동연, 재홍, 은교, 재욱, 주일

재가상좌: 기재, 기태, 기수

문의 및 연락처: 연방사 054-654-1246, 4

충민원 02-391-1437, 6

태허당 계한大宗사 원적 49일 추모제 불행안대

일시: 2548년 1월 23일 11시 30분, 갑신년 1월 2일

대한불교본원종 제 1·2·3세 종정 태허당 계한大宗사 종단장장의 위원회